

#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증심사		
활동목표	증심사의 유래 및 역사를 알리고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예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본다.		
해설주제	무등산과 증심사		
해설재료	갤럭시노트, 구급약품백	소요시간(')	60'

##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비고
시작	1. 만남 및 소개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15'	-
주제별 해설	2. 증심사	-증심사 창건 이야기 -증심사 보물	15'	-
	3. 오백전	-오백전 은요.	5'	
	4.원통전 석조보살입상	-석조보살의 비밀	5'	
	5.증심사 삼층석탑	-역사의 흔적 증심사 삼층석탑	5'	
	6.철조비로자 나불좌상	-증심사의 보물 철조비로자나불좌상	5'	
정리	7. 마무리	-느낌 말하기 -정리 및 마무리 인사	10'	-

신청인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만남 및 소개	<p>여러분 안녕하세요. (탐방객들의 주위를 환기시키며.) 여러분이 오신 이곳은 무등산국립공원의 ‘증심사’ 사찰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오신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나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오시는 길이 모든 일을 잊을만큼 참 좋죠?? 오늘은 모든 일을 잊고 공기가 맑고 시원한 여기 증심사에서 무등산의 소중한 자연을 이해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이곳 무등산국립공원은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을 관찰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럼 먼저 국립공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곳 무등산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참여유도)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또한 생물종 다양성 보고, 문화유산의 보고, 빼어난 자연경관, 삶의 질을 높여주는 휴식 공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놓을 자원, 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방금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왜 중요한 곳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주인인 야생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고성방가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등산은 올해 2013년 3월 4일에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을 잘 들은 친구라면 금방 알 수 있을겁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21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p>

16개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4개의 해안·해상형 국립공원, 1개의 사적형 국립공원 경주가 있습니다.

여기 무등산은 화산 분출로 생겨난 산인데요, 산의 대부분이 용암이 급속히 식어 만들어진 석영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부에는 천연기념물 465호 지정된 주상절리대 서석대와 입석대가 있습니다.

무등산은 광주·전남지역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산이라고 생각할만큼 아주 애착이 강한 산입니다.

그래서 산의 모양도 어머니의 마음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겼답니다.

자 이제까지 이곳을 포함한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배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곳에 사는 여러 동·식물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소중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좋아합니다. “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해설을 듣고 체험하며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해설사인 제가 해설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해설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OX퀴즈로 문제를 낼 생각입니다. 물론 정답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에게는 특별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선물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2. 증심사	<p>여기는 무등산 증심사!                      절 인건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럼 절은 어떤 곳일까요?                      (약간의 생각할 시간을 준다)</p> <p>“절은 부처님의 모습을 한 불상을 모시고, 스님이 수행을 하는 곳이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곳입니다.”</p> <p>보통 광주 사람들은 광주하면 무등산을 떠올립니다.                      다시 무등산하면 증심사를 생각합니다.                      증심사를 품은 산 무등산과 무등산의 중심인 증심사.                      이렇듯 증심사는 광주의 대표적 불교도량입니다.                      증심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유서석록」에서 ‘증심사’라 하였으며, 일제 때는 한국불교의 정통임을 자부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 하기도 하였습니다.                      증심사가 창건된 시기는 855년과 868년 사이 9c 통일신라 철감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증심사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유적은 오백전 앞 삼층 석탑인데 이 탑의 조성연대가 9세기 중후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철감선사가 화순 쌍봉사를 개창할 무렵인 9세기 중반경에 증심사를 창건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삼층석탑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때 혜조국사가 중창을 하고, 조선시대로 넘어와 세종 때 광주에 경양방축을 축조한 김방이 관세음보살의 현몽을 좇아 세 번째로 증심사를 크게 삼창하였으며, 이때 오백나한을 모시고 오백전을 지은 이도 김방입니다.                      하지만 정유재란(1592)으로 불에 타고, 광해군 때 석경, 수장, 도장스님에 의해 한 차례 더 큰 불사를 하여 4창 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의 보수를 하였지만, 6.25 전쟁으로 오백전을 제외한 대웅전, 명부전, 회승당, 취백루, 등 조선 중기의 건축물들이 모두 소실되었고, 이들 전각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과 탱화를 비롯하여 범종, 탑 등 귀중한 문화재들이 훼손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증심사의 건축물들은 오백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1970-1980년대 복원된 건물들입니다.</p>

증심사의 현존 건물은 대웅전·지장전·비로전·범종각·취백루·요사채 등입니다.  
증심사 내의 문화재로는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31호)과 삼층석탑(지방유형 제1호) 및 오백전(지방유형 제13호), 그리고 석조보살입상(지방유형 제14호)등이 있습니다.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오백전	<p>여기는 오백전입니다.</p> <p>오백전은 오백나한을 모시고 있는 건물입니다.</p> <p>여기서 나한은 석가모니의 제자들로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라는 의미이며 오백나한 중에 특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제자를 십대제자라 합니다.</p> <p>증심사 오백전은(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3호)은 조선중기 건물로 증심사에서 6.25 당시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당우일뿐만 아니라 무등산에 남아 있는 사찰 건물 중 가장 오래됐습니다.</p> <p>건물 내부의 나한은 1443년 전라감사 김방이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백나한과 십대제자의 성상을 조성·봉안하고 이 고장의 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지은 것이라 합니다.</p> <p>불단 중앙에는 연꽃 좌대에 앉은 석가모니불과 좌우 협시인 가섭·아난존자를 배치하였습니다. 그 좌우와 뒤쪽으로는 계단식 탁자를 설치하여 오백나한을 뺄뺄하게 배열하였는데, 이들 아라한상은 상호가 우수하며 영험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p> <p>이는 해암 대흥사 천불전 내에 봉안한 나한과 같은 형식의 흙으로 빚은 소조불입니다.</p> <p>그러나 정유재란 때 사찰이 소실되었다가 1609s년 석경·수장·도광 등 세분의 스님이 4창 하였으므로, 오백전은 이때 건립된 것이거나 이전에 존재하던 법당을 이 시기에 증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p>
4.원통전 석조보살입상	<p>원통전에 보관되어 있는 석조보살입상은 원래 담양군 남면에 있는 서봉사지(瑞峰寺址)에 있었던 것을 일제 강점기에 현 위치로 옮겨온 것으로 전해집니다.</p> <p>석조보살입상의 조성연대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현재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있다.</p>
5.삼층석탑	<p>이 탑은 증심사 삼층석탑(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입니다. 이 탑의 특징은 초층 옥개석의 일부와 상당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가 잘 남아 있습니다. 탑은 높은 이중기단을 갖추고 있으며, 탑신의 체감비율이 뚜렷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p> <p>삼층석탑은 해체 수리시 많은 보물들이 나왔는데, 이 때 발견된 유물들은 칠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금동불 2구는 각각 국보 제 11호와 제 12호로 지정되었으나 6.25 전란 이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높이는</p>

	<p>3.2m 밖에 되지 않는 아담한 석탑으로 증심사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9세기 유적이며, 이와 함께 오백전 우측으로 고려 시대의 5층석탑과 조선시대의 7층 석탑이 있는 것이 특이한 사항으로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의 탑 변천사 유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p>
<p>6.철조비로나 자불좌상</p>	<p>여기 비로전에 봉안되어있는 철조비로나자불좌상(보물 제131호)은 신라말에 제작된 철불로서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나자불좌상과 유사하며, 매우 희귀한 작품입니다.</p> <p>손모양은 왼손이 오른손 검지를 감싸 권 형태로, 일반적인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형식과는 반대로 된 점이 특이합니다.</p> <p>철조비로나자불좌상은 원래는 현 도청 뒤 대황사에 있었던 것인데, 이 절이 폐찰되면서 옮겨온 것이라고 합니다.</p> <p>이 불상은 통일신라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동안(童顔)의 얼굴이 특징이며 장흥 보림사, 해남 은적사 철불과 함께 우리나라 철불연구에 매우 귀중한 작품입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 마무리	
	<p>지금까지 저와 함께 국립공원의 소중함과 무등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증심사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p> <p>모두들 어땠나요?</p> <p>(대답유도)</p> <p>그럼 주변의 나뭇가지를 하나만 주어보세요.</p> <p>(발표시간-바닥에 동그란 원을 그린다.)</p> <p>그럼 오늘 느낀 점에 대해 한 명씩 원 안에 나뭇가지를 놓으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p>(한명씩 발표)</p> <p>이렇게 각자 느낀 점에 대해 얘기 해봤으니 무등산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겠죠?</p> <p>오늘 느낀 점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돌아가길 바라고, 시간이 된다면 토씨 등의 숨겨진 이야기와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비밀스런 동화사터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p> <p>이제 모두 오늘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며 해설을 마치겠습니다.</p> <p>이상 저는 자연환경해설사 ○○○ 이었습니다.</p> <p>감사합니다.</p>